

민주당 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 최고위서 결론

혁신당과 지선 전 통합, 명분 있지만 '갈등으로 귀결' 인식 공유

"지선 후 합당', '선거연대', '선거연합'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이나 범여권 통합의 명분에는 공감하되 그 시점과 통합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한두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전격적으로 제안한 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내용이 극에 달했던 점을 두고 양쪽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형식에 관해 이미 사과했지만 (채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 관련) 얘기를 했던 점도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총에서 공유된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심귀영 기자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화물차 안전 캠페인 진행

군포북합물류터미널에서 경찰청 등 8개 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합진규)는 10일 군포북합물류터미널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안전 특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급증한 화물차 사고와 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8개 기

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올해 초 화물차 교통사고 인명 피해 급증 상황을 참여기관과 공유하고, 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전 실천 서약에 참여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 영상을 홍보하고, 후부 반사 안전

스티커 등 화물차 맞춤형 안전 물품을 배부하여 야간 및 악천후 운행 시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고속도로 교통사고 인명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 8명 대비 약 3.8배 증가한 3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화물차 관련 사고는 8명 대비 2.4배 증가한 19명(63.3%)을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연평균 화물차 관련 인명 손실 규모는 약 76.3명으로 전체 인명 손실 규모의 50% 가 넘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초부터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SKT, 설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1120억 원 대금 조기 지급

네트워크 공사·서비스 용역 등 500여 개 협력사 및 250여 개 유통망 대상



대출을 제공해 평균 5.2%p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대금지급바로'는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라면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하고, 대금 규모도 제한이 없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SKT는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채용 및 무상교육 지원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중소 파트너사 대상의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박종석 SKT CFO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는 취지에서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강한 ICT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참여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사업 가속도

LH 참여 소규모정비 관리구역 4곳(3,500호) 1년 만에 승인 고시 완료

관악난곡 A2구역, 2개월 만에 법정동의율 67% 동의 확보.. 추진 급물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를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정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

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보증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

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투명 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조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으로 포용금융 확대

인천 가좌동점에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 갖춘 시니어 맞춤형 특화 공간 조성...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KB금융 그룹 차원에서 자산관리부터 요양·돌봄까지 아우르는 원스탑 라이프 컨설팅 제공



KB국민은행이 10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운지에서는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시니어 및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점포 형태의 'KB시니어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에서는 상속·증여 전문 상담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시

니어 행복 라운지는 어르신들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삶 전반을 함께하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그룹 차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KB라이프는 지난 1월 보험·요양·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은행 복합점포'인 'KB라이프 여상센터'를 오픈해 자산관리부터 요양·돌봄까지 아우르는 원스탑 종합 라이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송원 기자

롯데윌푸드, 월드콘 브랜드 모델에 손흥민 발탁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 월드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모델로 발탁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월드콘과 강한 에너지를 가진 손흥민의 만남으로 시너지 기대



롯데윌푸드는 대표 아이스크림 '월드콘'의 브랜드 모델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을 발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델 발탁 소식과 함께 공개된 캠페인 사진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청량한 매력을 발산한다. 월드콘의 시그니처 컬러가 연상되는 붉은색 축구 유니폼을 착용해 눈길을 끈다.

롯데윌푸드는 한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영향력과 지지치 않는 에너지가 브랜드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오랜 시간 정상 자리를 지켜온 월드콘의 꾸준함과 손흥민 선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손흥민과 함께 한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대규모 소비

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며 본격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고 캠페인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월드콘은 1986년 출시 이후 약 40년간 사랑받아온 '국민 아이스크림'이다. 출시 3년 차인 1988년부터 아이스크림 콘 시장 1위에 올랐고, 2025년에는 전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위에 땅콩 토핑과 초콜릿을 얹은 독창적인 구조는 업계에서 아이스크림 콘의 바이블로 통한다.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도 유명하다. 월드콘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고, 월드클래스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는 등 역동적이고 활기찬 마케팅 프로모션을 전개해 왔다.

롯데윌푸드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월드콘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국가대표급 브랜드와 월드클래스 선수가 만나 선보일 새로운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